

북한 말의 수록에 대하여

김 세 중
(국립국어연구원 연구관)

1. 머리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어대사전을 편찬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는 한민족이 쓰는 언어재를 한자리에 모아 보자는 것이었다. 1945년 분단 이후로 남북한은 같은 민족이면서도 상호 교류를 차단한 채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를 수호해 옴으로써 언어도 각기 독자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분단된 지 50년 동안 언어의 변화는 상당한 정도에 이르러서 동일한 언어라고는 하면서도 상당한 수의 다른 어휘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민족 통일을 앞두고 남북한의 이러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우선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의 언어가 어떻게, 얼마나 다른지부터 밝혀 지지 않고서는 차이의 해소 방안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어휘들의 경우 통일이 되면 그 중의 상당 부분이 소멸되고 정리될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변화는 언어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겠고 언중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리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통일 이후에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정리될 것인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다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북한의 언어 상태를 사전에 기록해 두어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 글은 국립국어연구원이 편찬하는 국어대사전이 분단 이후 이질화된 북한의 언어 상태를 반영하려고 하는 목적을 밝힘과 아울러 언어 차이의 유형별 수록 방안을 제시하

려는 데 목적이 있다.

2. 북한 말을 수록하는 목적

국립국어연구원의 국어 사전 편찬의 주요한 동기는 표준 사전의 필요성이었다. 민간 출판사에서 펴낸 대사전이 여러 종류가 있었으나 사전 간에 차이가 많아서 국민 언어 생활의 규범으로 삼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정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표준이 무엇인지 정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 또 기존 국어 사전들이 모두 일치해서 틀리게 기술한 부분도 적지 않은 바 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

국어 사전은 표준어의 보급이 그 중요한 목적이다. 표준어란 현재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서울말로 규정되어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전은 방언과 고어를 완전히 배제한 채 현재의 표준어만 수록하면 사전의 1차적인 목적은 달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의 목적이 표준어의 보급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즉 표준어를 완벽하게 제시하는 표준 사전의 부재에서 우리 사전의 편찬이 시작된 것이 사실이지만 표준어의 수록과 제시만이 우리 사전의 편찬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표준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방언의 제거, 멸실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표준어의 보급은 방언을 인정하는 가운데 의도하는 목표이다. 나아가 방언의 상태를 있는 대로 보여 주는 것 또한 사전의 부차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사전이 방언을 기술해 보여 주려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언어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자세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에는 2,000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가 살고 있고 사용되는 언어는 다른 어떤 언어도 아닌 한국어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언어를 쓰지만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이질화된 우리말을 쓰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 지역의 특수한 언어 상황을 우리 사전에서 전혀 도외시한다면 북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재를 보여 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북한의 문화를 통일 한국의 표준어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지는 않는다. 서울말이 한반도의 표준어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다만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 주지 않는다면 한민족이 사용하는 언어재를 있는 그대로 한 곳에 모아 보자는 우리 사전의 편찬 태도와 어긋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만일 북한의 말을 수록하지 않는다면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서만 쓰이는 독특한 말들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북한의 방송을 듣거나 북한의 문학 작품이나 신문을 읽으면서 많은 생소한 낱말들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 의미를 알고자 할 때 우리 사전이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사전의 효용은 반감된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말을 우리 사전에서 수록하였다고 해서 그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북한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쓰이는 말들을 실어 줌으로써 북한에서 쓰이는 우리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우리 사전이 북한의 말을 실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장차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음에 있어서 그 차이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보여 주는 것 자체가 첫걸음이라는 것도 북한 말을 수록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3. 북한 말의 파악 방법

남북한의 언어 차이에 대해서는 상당한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 성과는 북한의 국어 사전, 북한 국어학자들의 저술, 북한의 교과서 등 매우 제한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북한의 현실 언어 생활에 직접 참여할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의 증언이나 보고를 청취할 기회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전의 북한 말 수록도 마찬가지로 북한 말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어서 획기적인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 남북한의 민간 교류, 학자들의 교류가 아직까지도 트여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전이 북한 말을 수록함에 있어서도 거의 전적으로 북한에서 발간된 국어 사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언어의 사전도 사전이 언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 말이란 끊임없이 생성, 소멸, 변화하고 있고 사전은 그러한 변화를 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인위적으로 다듬은 말들이 과연 언중의 언어 생활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의 현실 언어 생활을 알 수 있는 통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국어 사전이 곧 북한의 말을 반영하고 있다고 간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국어 사전은 “조선어 소사전”(1956), “조선말사전”(1962), “현대조선말사전”(1968), “조선문화어사전”(1973), “우리말사전”(1977), “현대조선말사전(제이판)”(1981), “조선말대사전”(1992)이 있다. 우리 사전의 북한 말 수록은 가장 최근에 북한의 말을 종합 집대성했다고 할 수 있는 “조선말대사전”(1992)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즉 “조선말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의 형태, 표제어의 발음, 뜻풀이, 어원 등을 북한 말의 실체로서 인정하게 될 것이다.

4. 북한어의 정의

남북한의 언어 차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발견된다.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두음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태일(북)/내일(남)'과 같은 어형의 차이가 나타난다. 어두음의 상이에 따른 어형의 차이만을 보일 뿐 의미는 똑같은 경우이다. 이 경우 '태일'은 '내일'의 북한 말로 볼 수 있다. 한편 '궁전'이란 말이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 시설과 체육, 문화 시설들을 갖추고 정치문화교양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이라는 남한에서는 없는 뜻을 갖고 있다. 남한에서는 없는 뜻의 말 역시 북한 말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로터리'라고 하는 것을 북한에서는 '도는네거리'라고 다듬었는데 '도는네거리'란 말이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북한 말이 된다. 그 밖에 북한의 방언이 문화어로 격상된 경우, 예를 들어 '인차'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곧', '이내'와 비슷한 말인데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므로 북한 말이다. 어휘적 형태소뿐만 아니라 문법적 형태소의 차이도 있다. 표기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경우는 발음의 남북한 차이를 보여 주는 경우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말 가운데는 형태, 의미, 어휘, 발음에 있어 남한의 말과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있다.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즉 북한에서만 나타나는 형태, 의미, 어휘, 발음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 말임을 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포괄적으로 뭉뚱그려 북한어라 부르고자 한다.

'북한어'라는 단어는 남한의 국어 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이고 북한의 국어 사전에도 물론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어'라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그 개념을 정의하지 않을 수 없는데 '북한어'를 '북한 지역에서 쓰이는 한국말'로 정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남한 지역의 한국말과 공통인 요소는 빼고 '북한 사회 특유의 말'만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어를 후자의 개념으로 정의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어를 북한에서만 쓰이는 형태, 의미, 어휘, 발음이라 정의하고 우리 사전에서는 표제어 뜻풀이(여러 뜻 가운데 어느 하나가 북한의 뜻일 때)를 보여 주는 항에서 각각 「북」 표시를 해 줌으로써 북한 특유의 용법임을 보이게 될 것이다.

5. 유형별 북한어

우리 사전에 반영해야 할 북한 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유형화해 볼 수 있다. 그 유형과 처리 방안을 제시해 본다.

(1) 뜻이 같고 형태가 다른 말

가. 두음 법칙

‘여성, 내일, 노동, 노임, 임자, 영리하다, 이화여대’와 같은 말을 북한에서는 ‘녀성, 래일, 로동, 로임, 남자, 령리하다, 리화녀대’와 같이 적고 발음한다. 외래어 아닌 말의 두음에 ‘ㄹ’을 허용하지 않고 ‘녀, 뇨, 뉴, 니’도 허용하지 않는 우리말의 제약을 북한에서 따르지 않음으로써 형태상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이다.

우리 사전에서는 북한에서 쓰이는 어형 다음에 「북」 표시를 한 뒤에 뜻풀이는 하지 않고 같은 뜻의 남한어를 알려 준다. 따라서 그 뜻은 남한어를 보면 알 수 있다.

나. 사이시옷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남한에서는 한자어 중에서 관용을 인정한 6개와 고유어와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에 대해서는 사이시옷을 쓴다. 따라서 사이시옷이 있느냐 없느냐의 형태상의 차이를 보인다. 남한에서는 ‘뺏출, 햇빛, 텃세, 빗물, 햇불, 깃발, 숫자, 붓짐, 멧돼지’와 같은 말이 북한에서는 ‘바출, 해빛, 터세, 비물, 해불, 기발, 수자, 보짐, 메돼지’로 표기되고 있다.

사이시옷을 안 쓰는 북한 말을 수록하고 「북」 표시를 한 뒤에 뜻풀이는 하지 않고 같은 뜻의 남한어를 알려 준다. 따라서 그 뜻은 남한어를 보면 알 수 있다.

다. 외래어 표기

남북한은 외래어 표기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에서는 외래어 표기에 있어 된소리를 쓴다든지 국제 음성 기호의 [ʃ]를 ‘ㅅ’에 대응시킨다든지 하는 차이가 있어서 남한에서 ‘볼, 컷, 디스토마, 펌프, 피겨, 하키, 텔레비전, 버스, 아파트, 해머’와 같은 말을 북한에서는 ‘뽈, 카트, 지스토마, 뽐프, 휘겨, 흑케이, 텔레비죤, 뻬스, 아뻬트, 함머’와 같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도 단순한 어형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북한의 어형을 수록하고 「북」 표시를 한 뒤에 같은 뜻의 남한어를 보여 줌으로써 뜻은 남한어를 보도록 한다.

라. 그 밖의 차이

‘웨치다/외치다, 들리다/들르다, 날자/날짜, 퍼그나/떡이나’와 같이 모음의 차이를 보이는 단어들이다. 또 ‘규률/규율(規律), 대렬/대열(隊列), 조률/조율(調律), 치렬/치열하다’와 같이 북한에서 한자음을 발음에 관계없이 고정시키고자 하는 데서 나온 단

순한 표기의 차이만을 보이는 예도 있다. 북한에서 남한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ㅣ' 모음 동화 현상을 수용함으로써 달라진 '웅덩이, 해염, 해여지다'와 같은 말도 뜻은 같고 형태가 다른 경우이다. 된소리에 있어 남한에서 평음인 것을 북한에서 된소리로 적는 경우(원쭉, 복쭉)가 있고 반대로 남한에서 된소리로 적는 것을 북한에서 평음으로 적는 경우(손벽, 색갈)가 있다. 또한 한자어의 독음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마. 문법 형태소의 차이

'-르가/-르까, -르가말가/-르까말까, -군하다/-곤하다'와 같은 어미, 접사의 차이도 나타나고 있는데 「북」 표시를 하고 뜻풀이는 남한의 말에서 하게 될 것이다.

(2) 형태는 같고 뜻이 달라진 말

교시란 말이 남한에서는 '가르쳐 보임' 정도의 의미만을 지니지만 북한에서는 '김일성 동지가 가르쳐 주신 혁명건설의 지침이 되는 말씀'의 뜻을 가진다. 김일성 우상화와 관련해서 '장군, 주석, 수령' 등과 같은 말들이 이에 해당되고, '동무, 동지, 반동'과 같은 말은 북한 체제와 관련해 특수한 의미를 띤 말이며 '혁명, 노동, 지주, 부자'와 같은 말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보는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체제나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말 가운데도 의미가 달라진 말이 있다. '동안'을 북한에서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의 시간적인 사이'라 하여 명사로 쓰는 것은 그런 예다. 이러한 변화에 힘 입어 '동안이 뜨다'와 같은 관용구가 생겨났는데 그 뜻은 '시간적인 사이가 좁 오래다'이다. 또한 '요해하다'라는 말은 남한에서는 '깨달아 알아듣다'의 뜻인 데 반해 북한에서는 '사정이나 형편이 어떠한가를 알아보다'여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북한의 말 중에서 남한의 말과 형태는 같으나 뜻이 다른 말에 대해서는 남한 말의 뜻풀이 다음에 북한에서의 뜻을 보여 주게 된다.

(3) 다듬은 말 (일상어와 전문어)

북한은 1964년과 1966년에 김일성 교시가 나온 이후로 대대적인 어휘 정리에 들어갔다. 한자어, 외래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바꾸는 말 다듬기 사업은 어휘 정리 사업의 으뜸가는 일이었다. 북한은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인위적으로 많은 한자어, 외래어를 고유어로 바꾸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만든 말을 사전에 수록함으로써 북한의 국어 사전에는 새로 만든 말이 대폭 수록되어 있다. 북한이 만든 다듬은 말 중에는 남한의 국

어 순화 운동에서도 똑같이 바꾼 말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남한에서는 볼 수 없는 말이다.

북한의 다듬은 말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상 생활의 어휘에서 다듬은 말과 전문 용어 중에서 다듬은 말이 그것이다. 전자에 속하는 말로는 '도는네거리(로터리)', '굽인돌이(커브)', '머리아픔(두통)', '뜻같은말(동의어)', '큰물(홍수)'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은 다듬은 말을 사전에 수록하면서 다듬기 전의 외래어, 한자어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다듬기 전의 말과 다듬은 후의 말을 쉽게 알 수가 있다. 다듬기 전의 말이 남한에서 표준어일 경우에 뜻풀이를 남한의 표준어에 미룸으로써 다듬은 말 수록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전문어의 경우는 간단치 않다. 우선 북한의 다듬은 말 가운데는 후자인 전문어에 속하는 말이 수적으로 더 많다. 북한이 1966년 6월부터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 산하 18개 전문 용어 분과위원회를 동원하여 말 다듬기 사업을 한 결과이다. 이 사업에서 북한의 전문어는 거의 대부분이 말 다듬기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전문어의 경우는 다듬기 전의 말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같은 뜻의 남한 용어가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뜻풀이를 북한의 다듬은 말에서 할 것인지 같은 뜻의 남한 용어를 일일이 확인하여 같은 뜻의 남한 용어를 보여 줄 것인지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문어와 관련하여 전문 분야의 영역을 명시하는 문제도 간단치가 않다. 북한 사전의 전문 분야 분류가 남한 사전과 꽤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무용, 방직, 운수, 임학, 자동화, 잠학 등의 분야는 남한 사전에서는 따로 독립된 전문 분야로 세우지 않은 분야들이다. 북한 사전의 전문 영역 표시에 관해서 특기할 것은 동물과 식물의 이름이다. 북한 사전에서는 동물과 식물의 명칭에 대해 동물(학)이나 식물(학)과 같은 전문 분야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일반어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생물이란 전문 분야를 두고 있는데 생물 전문 분야에 속하는 어휘는 생물학의 일반적인 개념에 관한 것이고 구체적인 동식물 종류에 대해서는 일반어 처리를 하고 있다.

(4) 방언의 문화어 격상과 새로운 조어법에 따른 말,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말

북한 사전을 펼쳐서 남한의 사전과 비교해 보면 표제어의 차이는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언뜻 보면 남북한의 언어 차이가 극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과연 남북한의 주민이 서로 만나서 의사 소통을 하기 힘들 정도로 언어 차이가 심각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 일상 생활의 대화 수준에 쓰이는 말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언어 차

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대사전은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까지 모두 수록하기 때문에 사전상으로는 표제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 사전에만 수록된 어휘는 위에서 언급한 다듬은 말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 하나는 방언이 문화어에 편입되어 사전에 오른 경우이다. 바위츠렁(=바위가 츠렁츠렁 많이 있는 험한 곳 또는 험하게 겹겹으로 쌓은 큰 바위), 불망나니(=지독하게 못한 망나니. 불망중), 아바이(=《나이가 지긋한 남자》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과 같은 명사, '일떠서다', '뚜지다'(=땅을 파뒤집다)와 같은 동사, '홍그럽다'(=홍이 나서 홍글홍글하는 멋이 있다), '우불구불하다'(=고르지 못하게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다), '궁겁다', '허거프다' 따위와 같은 형용사, '뜨직뜨직'(=말이나 행동이 매우 느리고 더딘 모양을 나타내는 말)과 같은 부사는 북한의 방언이었던 말이 문화어가 된 말이다. 이러한 말은 북한 사전에 문화어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북한의 말임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휘 정리 사업을 하면서 새로운 조어법을 동원하여 새로 만든 말이 많은데 이들이 다 문화어가 되었다. '허전감'(=허전한 느낌), '셈세기'(=셈을 세는 일)와 같은 명사나, 부사화 접미사 '-이', '-히'를 자유로이 결합시켜 만든 '드문히', '명랑히', '살랑히', '시들히' 등이 그 예이다. 또 '-하다'를 결합시켜 '낮춤하다, 물론하다'와 같은 형용사를 만들어 낸 경우나 '-차다'를 결합시켜 '자랑차다'와 같은 형용사를 만든 경우도 있다. 동사 가운데서도 '조동(調動)되다'(=조직적 조치나 행정적 조치로 직장을 옮기는 것), '교양(敎養)하다'(=사람들을 사회 생활과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추게 하다)는 새로운 조어라고 볼 수 있다. 한자어의 조어도 있는데 '흙진기'(=청소 같은 것을 할 때에 먼지를 빨아들이는 기구)가 그 예이다. 또한 보조 용언의 새로운 용법도 생겨나게 되었는데 예컨대 '나다'의 경우 북한에서는 '(일부 동사의 《아(어, 여)》형과 결합하여) 형용사가 뜻하는 속성이 일정한 정도에 이름을 나타낸다.'와 같이 뜻풀이하고 '부러위나다'와 같은 말을 쓰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사회 발전에 발맞추어 새로운 말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만들어 진 말들은 북한 사회의 제도나 체제, 실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인민배우, 공훈배우, 인민기자, 세포위원장, 종파분자'하는 말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말이다. 마치 남한에서 '마을버스, 모범택시, 반상회'와 같은 말을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5) 외래어

남한에서 쓰이는 외래어 중에 북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외래어가 무척 많은 것처럼 북한에서만 쓰이는 외래어도 꽤 있다. 북한에는 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많이 있다. ‘깡빠니야, 프락포르’ 등의 외래어는 남한에서는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러한 말들은 분단 이후 북한이 노어로부터 차용한 말이다. 노어에서 온 말의 경우는 어원 표시가 문제가 된다. 북한 사전에서는 노어에서 들어온 외래어의 경우에 노어 표기를 보여 주고 있다. 이것은 당연한 처리로 보이는데 우리 사전에서 외래어의 원어는 로마자로 표기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경우에는 북한 사전에 제시된 노어 표기를 로마자로 옮겨야 한다는 문제가 뒤따른다.

(6) 발음의 차이

표기는 같더라도 남북한의 발음이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밭고’의 경우 남한의 발음은 [밭꼬]이고 북한의 발음은 [밭꼬]이다. 또 ‘대승적(大乘的)’의 발음을 북한 사전에서는 [-쩍]이라 하고 있는데 남한의 표준 발음은 [대승적]이다. 이러한 발음의 차이도 사전에서 보여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표제어에 대해 남북한의 발음이 차이나는지를 밝혀 보이는 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므로 북한의 발음을 따로 보이지는 않기로 한다.

6. 북한어로 볼 수 없는 말

단순히 사전의 표제어만을 두고 볼 때 남한 사전에 오르지 않는 말의 수효는 참으로 엄청나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남한에서도 쓰이는 말이지만 남한에서는 구로 보아서 수록하지 않은 말이 매우 많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과 남한의 단어와 구의 구별 기준이 달라서 생긴 것이다.

구로 볼 수밖에 없는 구성을 북한 사전에서 단어로 간주하여 표제어로 올린 예들로 ‘몸안’ (=사람이나 동물의 몸의 안), ‘머리빗’ (=머리를 빗는 데 쓰는 빗), ‘메추리알’ (=메추리의 알), ‘말싸움’ (=말로 하는 싸움), ‘담배맛’ (=담배를 피울 때 느끼는 맛) 등의 말은 모두 북한에서 단어로 간주하여 표제어로 수록하고 있다. 구로 보이는 말들을 우리 사전에서 배제하려고 할 때 구인 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가 문제이다.

1음절 한자어가 접사처럼 쓰여서 새로 단어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표제어로

34 새국어생활 제5권 제1호('95년 봄)

올려 줄 것인지의 문제도 표제어 결정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북한 사전을 보면 남한 사전에는 올리지 않은 말들이 대단히 많다. 예를 들어 '대(大)'의 경우 남한 사전에는 '대가족, 대강당, 대구분, 대규모, 대도시' 등이 올라 있지만 북한 사전에는 이들 외에도 '대강습, 대강연회, 대건설, 대결작, 대격전, 대결전, 대경사(=큰 경사(大慶事)), 대공사(=큰 규모의 공사), 대공연(=대단히 큰 규모의 종합예술공연), 대군중시위(=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군중시위), 대궁궐(=큰 궁궐), 대궁전(=큰 규모의 궁전), 대극장(=큰 극장), 대단결(=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하여 힘과 마음을 합쳐 크게 하나로 뭉치는 것), 대단합(=크게 이루어지는 단합)' 따위가 올라 있다. 북한 사전에만 오른 이런 말들을 남한에서는 안 쓰이는 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음절 한자어가 접사처럼 쓰여서 만들어진 말을 북한 사전처럼 모두 찾아서 올릴 것인지 첨가된 의미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만을 올릴 것인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7. 그 밖의 문제

북한어의 경우 주석을 베풀어 주어야 하는데 우리로서는 그 뜻을 북한 사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북한의 뜻풀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인가이다. 예컨대, 해방의 첫 번째 뜻을 북한 사전에서는 '(외래 침략자나 착취 계급들의) 민족적, 계급적 지배와 예측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주석하고 있다. 또 부자의 뜻을 '낡은 사회에서: (착취와 협잡으로 굶어모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로 풀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마련인 이러한 뜻풀이를 그대로 옮겨 놓을 것인지, 우리의 관점에서 재검필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재검필할 때에는 집필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큰 과제가 된다.

한편 북한의 사전은 문화어 사전이기 때문에 북한의 방언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방언이라고 해서 우리 사전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방언을 어떻게 수집하여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에서 나온 방언 자료집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8. 맺음말

우리 사전이 북한 말을 반영하는 것은 사전을 이용하는 남북한 사용자들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남한의 사용자들에게는 북한의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북한의 사용자들에게는 남한의 말을 이해하게 해 준다. 우리 사전이 북한 말을 수록하는 것은 남

북한의 언어 차이를 고정시키자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한 자리에 모아 보여 주고 이를 바탕으로 그 차이를 줄여 나가는 길을 열어 보자는 데 뜻이 있다. 그러나 북한 말의 수록에 있어 간단치 않은 과제가 숨어 있음을 보았다. 우리 사전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영근 편(1990), 북한의 말과 글, 을유문화사.
 국어연구소(1989),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Ⅱ. 고유어 편)
 국어연구소(1990),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Ⅲ. 한자어·외래어 편)
 남성우, 정재영(1990), 북한의 언어 생활, 고려원.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 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전수태, 최호철(1989), 남북한 언어 비교, 녹진.
 정순기, 리기원(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언어문학연구소(1956), 조선어 소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조재수(1986), 북한의 말과 글 -사전 편찬을 중심으로-, 한글학회.